



3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 노스 아레나 탁구 경기장에서 열린 2012 패럴림픽 남자 단식 클래스4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영건이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건 ‘베이징 노메달’ 설움 날렸다

‘아테네 2관왕’ 8년만에 금
패럴림픽 한국 종합 14위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의 김영건(28)이 런던 패럴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한국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은 대회 5일째인 3일(현지시간), 탁구에서만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추가해 종합 14위에 올랐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탁구 2관왕 출신 김영건은 이날 영국 런던 엑셀 노스 아레나 탁구 경기장에서 열린 2012 패럴림픽 남자 단식 클래스4 결승에서 장안(중국)을 3-1(14-12 11-9 12-14 11-9)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건은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무관의 굴욕을 설욕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4개를 모았다. 앞서 사격의 박세균, 강주영에 이어 유도의 최광근이 한국 대표팀에 금메달을 추가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탁구 남자 단식 클래스11(지적장애) 결승에서는 손병준(18)이 아쉬운 패배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지적장애인 선수를 출전시킨 수영과 탁구 두 종목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휠체어 탁구의 김경욱은 탁구 남자 단식 클래스2 결승에서 슬로바키아의 안 리아포스에게 1-3으로 패하고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 탁구 남자 단식 클래스1 3-4위전에서 이창호는 영국의 데이비스 폴에게 2-3으로 패배해 메달을 추가하지 못했다. ‘얼짱’ 수영 선수로 관심을 모은 김지은

(29)은 수영 여자 100m 자유형 S7 결승에서 1분18초03의 기록으로 8명 중 8번째로 터치 패드를 찍었다. 이 경기에서는 후주의 재클린 프레니(1분09초39)가 패럴림픽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주인공 박세균은 사격 혼성 25m관총 SH1 결승에서 744.8점을 쏘 8위에 그치면서 2관왕 달성에는 실패했다. 박세균은 권총에 문제가 생겨 결승 4번째 총알이 나가지 않으면서 10점 정도 손해를 봤던 점이 아쉬웠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이주희는 762.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한국은 이날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추가해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14위를 달렸다. /연합뉴스

“결혼할 여친에 최고의 프리포즈 선물”

김영건 금메달 인터뷰

“탁구를 그만두지 않기를 잘했네요.” 베이징의 아픔을 딛고 광주출신의 김영건(28·광주시청)이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건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 노스 아레나 탁구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탁구 단식 클래스4 결승전에서 중국의 장안을 3-1(14-12 11-9 12-14 11-9)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한국의 네 번째 금메달이자 자신의 세 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이다. 김영건은 스무 살이던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단식·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에 올랐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에서는 ‘노메달’에 그쳤다. 아테네의 영광을 잇기 위해 너무나 많은 훈련을 했던 게 오히려 문제가 됐다. 휠체어에 앉아 휠새없이 움직이면서

입은 상처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김영건은 “베이징 대회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다시 전성장에서 환하게 웃었다. 4년 전 시련을 딛고 따낸 이번 금메달은 값진 결혼선물이기도 하다. 김영건은 결승을 앞두고 “장애인탁구 코치로 활동 중인 여자친구에게 반드시 금메달을 선물하고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이번 금메달은 프리포즈 선물이 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그 각오대로 광주에서 마음졸이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금메달 선물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런던 응원전에 나선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경배 회장은 “대회 초반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고전했는데 컨디션이 좋았다. (이집트 살레와 만난) 4강이 가장 큰

고비였는데, 강적을 3-1로 쉽게 꺾으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기쁨을 전했다. 중학교 1학년이던 1999년,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잘했던 김영건에게 척수염이라는 악몽 같은 병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한 탁구는 장애를 딛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금메달의 영광과 패배의 아픔도 같이 주었다. 베이징 패럴림픽 실패 이후 김영건은 생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또 다른 인생이 되어준 탁구를 그만둘 생각도 했다. 체급 변동이후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고향 광주에 장애인탁구 실업팀이 창단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김영건은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해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건은 6일 열리는 탁구 단체전에서 런던 패럴림픽 2관왕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비룡 사냥 이용규에 달렸다

(SK)

틀타자 활약 승부 갈라



틀타자가 SK전 승부를 가른다. KIA 타이거즈가 5일 부터 안방에서 SK 와이번스와 3연전을 치른다. 들쭉날쭉한 성적에 KIA의 4강 꿈이 멀어지는 했지만 아직 끝난 싸움은 아니다. SK와의 3연전은 KIA의 4강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다. 0.5계급차로 3위와 4위에 올라 ‘가을잔치’를 기대하는 SK와 두산이 그나마 KIA가 노려볼 수 있는 4강 재물이기 때문이다. 2위 진입까지 노려보던 KIA는 앞선 SK와의 원정에서 싸움이 3연패를 당하며 4강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SK는 KIA전 3연승을 시작으로 가을 야구의 저력을 보이며 상승세를 탔다. 비랑 끝에서 설욕전을 벌이는 KIA와 4강 자기기에 나서는 SK의 승부는 틀타자 승부가 될 전망이다. ‘호랑이 군단’의 완패로 끝났던 지난 3연전에서 틀타자로 나선 KIA 이용규와 SK 김강민의 활약에 양팀의 승패가 갈렸다. KIA 전력의 핵심인 이용규는 3연패를 당한 3경기에서 안타 하나, 볼넷 하나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공격의 시작점인 이용규의 활약이 뛰이면서 KIA는 3경기에서 3점을 만들어내는 졸전을 펼쳤다. 반면 SK의 틀타자 역할을 수행했던 김강민은 2개의 2루타를 포함 5개의 안타와 볼넷도 하나 끌라내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2012시즌을 여는 첫 경기에서도 틀타자의 움직임에 승부가 갈렸었다. SK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6타석에 들어선

이용규가 볼넷으로 단 한차례 출루했지만 SK 정근우는 1회부터 내야안타로 출루하면서 KIA 내야진을 흔들었다. 2루수 안치홍의 실책까지 더해 손쉽게 홈을 밟은 정근우는 이날 5타수 4안타의 맹활약으로 KIA의 개막전 연패 기록을 ‘8’로 늘렸다. 올 시즌 이용규는 유독 SK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경기에서 6개의 안타를 때려내는데 그치며 타율이 0.130에 머물고 있다. 도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SK전에서만 도루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부진 만회와 팀 4강을 놓고 이용규의 ‘반전쇼’가 절실한 KIA다.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앞선 5경기에서 21타수 7안타, 0.333의 타율과 함께 2개의 도루를 추가했다. 컨디션 난조로 9번으로 내려앉기도 했던 SK 정근우도 틀타자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0.400의 타율을 기록한 정근우는 홈런도 쏘아올리는 등 KIA가 우선 막아야 할 경쟁대상이다. 4강을 놓고 싸울 건 3연전, 틀타자의 표정에 따라서 양팀의 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용규

청소년야구 내일 운명의 한·일전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과 일본이 6일 오후 6시 목동구장에서 마침내 자웅을 겨룬다. A조와 B조에 각각 포진된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3승1패의 성적을 거둬 결승 라운드 진출이 유력하다. 애초 결승 라운드 첫날인 5일 한·일전이 열릴 가능성이 컸으나 흥행성을 고려해 6일 야간 경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대한야구협회

는 전했다. 이 경기는 케이블 스포츠채널 SBS ESPN이 중계한다. 이번 대회는 12개 팀이 A·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3개 팀이 결승 라운드에 올라 크로스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4일 잠실에서 열린 예정이던 A조 한국(3승1패)-네덜란드(4패)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의 힘 보여주마”

11일 월드컵 3차 예선 최강희호 우즈베크 출국

구자철 오른쪽 발목 인대 부상으로 합류 못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결전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출국했다. 이승기(광주), 이동국(전북) 등 K리그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 16명과 코치진이 이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영(셀타 비고) 등 유럽팀 소속 선수들은 5일 현지 캠프에 합류한다. 최강희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이 이번 경기를 지면 최종예선 통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것이다. 초반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라며 “한국 축구의 힘을 보여주고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예선 1, 2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대표팀에게 이번 경기는 본선 진출의 최대 분수령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카타르에 4-1로 대승을 거둔 데 이어 다음 날 레바논에도

3-0으로 승리해 최종예선 A조 1위(승점 6·골득실 +6)에 올라 있다. 반면 최종예선 1무1패로 A조 4위에 머물러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7승1무1패로 월등히 앞선다. 지난 2월 전주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도 한국이 4-2로 이겼다. 대표팀은 약 1주일간 현지 적응 훈련을 한 뒤 오는 11일 파르타코르 센트럴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구자철의 에이전트는 4일 구자철이 수술 여부를 두고 소속 구단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철은 지난 2일 샬케04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 발목을 다친 뒤 후반 13분까지 뛰다가 결국 교체돼 벤치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앞둔 최강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